

문학 공부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② 운율은 시의 3요소 곧 출제 포인트

지난 시간에 상황과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문학에서 빠질 수 없는 운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운율에 대해 학생들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① 운율은 반복하면 생긴다.

② 운율 문제는 '내용'과 상관없이 '형식'을 물어보는 문항이므로 객관적으로 쉽게 풀 수 있다. 시를 오독했다고 해서 틀리는 일이 없는 효자 유형인 셈이다.

③ 운율 문제는 용어를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시어'와 '시구'를 구별하고, '문장'과 '문장 구조'를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주, 변용, 음절 수를 조절, 처음과 끝을 호응 등과 같은 용어를 자신있게 구분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정리

시어 : 한 단어 예시 정범이, 멋진, 훌륭하다

시구 : 두 단어 이상 예시 정범이 훌륭하다

문장 : 주어+서술어 예시 정범이 훌륭하다

문장 구조 : 통사 구조 즉 문장 성분이 동일한 형태. 조사와 어미로 판단한다.

예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수미상관 : 시의 처음과 끝을 호응시키는 법

시적 허용 : 음절수를 조절하거나 비문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음성 상징어 : 의성어, 의태어를 말함. 단, 부사어와 혼동을 주의하자. 분분한 낙화에서 '분분한'은 음성 상징어라고 말하지 않는다.

④ 운율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의 형식으로 출제된다.

- 무엇 : 시어, 시구, 문장, 문장 구조를 구분할 수 있는가
- 어떻게 : 동일하게 반복했는가?, 유사하게 반복했는가?

⑤ 산문처럼 쓰인 산문시에도 운율은 존재한다. (내신용)

그럼 먼저 **운율**이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자.

1) 최근 수능 분석

2017년 수능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이동을 앞둔 여유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계책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2016년 수능 B형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수능 A형

각 수 종장의 마지막 어절에는 **동일한 시어를 배치**하여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해야겠군.

2015년 수능 B형 출제 X

2015년 수능 A형

모든 연을 2행으로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의태어를 나열하여,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 위 표를 보면 알겠지만 최근 수능 3개년에서 **운율**은 선지 하나 이상 출제되고 있다. 이전 수능은 더할 나위 없다. EBS 연계보다 개념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문제 유형 정리

운율 문제는 크게 2가지만 주목하면 된다.

첫째는 **무엇을** 반복했는가?

- 시어, 시구, 시행, 문장, 문장 구조(=통사 구조) 등 여러 가지를 반복할 수 있으며 서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어떻게** 반복했는가?

- 동일하게 반복했는지 유사하게 반복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사하게 반복할 때는 '**변용, 변주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 그럼 다음 문제들을 직접 한번 풀어보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3년 수능]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쥘 대로 쥘다

청풍(淸風)에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4장>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 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6장>

1. 시어의 반복과 유사한 구조를 통해 시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O , X)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년 수능]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같이 저리 고을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꿇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데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4. 위 시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 <2>, <3> 모두 세 연씩으로, 각 연은 두 행씩으로 구성되어 형식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 ② ‘산 너머 남촌에는’이 <1>, <2>, <3>의 1연마다 반복되어 시 전체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1>, <2>, <3>의 각 3연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 후렴구로 기능하고 있다.
- ④ 시어와 표현 면에서 <1>과 <2>는 유사성이 크지만, <3>은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 ⑤ <1>의 2연은 문장 구조가 같은 두 행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2>의 2연도 마찬가지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3년 9월]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데까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보다 더 매울까
시집 삼 년 살고 나면
미나리꽃이 다 피나고 장다리꽃이 다 피나네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일세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데까
시집간 지 사흘 만에
부엌문을 열어 보니 거미줄이 가득하고
솔뚜껑을 열어 보니 녹이 하나 가득하고
아궁지를 들여다보니 각시풀이 가득하고
물독을 들여다보니 쟁개비*가 가득하고
열두 폭의 다홍치마 헛대 끝에 걸어 놓고
들며 나며 나며 들며 눈물 씻기 다 썩었네.

- 시집살이요(양주 지방) -

5.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율격을 살리고 있다. (O , X)

3) 마무리 하며

수능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시험이다. 국어 문제는 크게 형식과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형식을 묻는 문제는 객관적이며, 명확하다. 따라서 긴장되는 수능 날, 형식을 묻는 문제는 명확히 지워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위 5 문제를 풀어보아서 알겠지만 운율 문제는 비교적 쉬운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읽어내고 풀어내는 것도 실력이다. 이제 곧 3월 학평이다. 당신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답

- 1) O [해설] 시어 반복은 '돌아가자 돌아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유사한 구조는 4장에 '땀은 듣는대로 듣고 별은 짙 대로 짙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2) O [해설] 시어 반복은 '돌아가자 돌아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유사한 구조는 4장에 '땀은 듣는대로 듣고 별은 짙 대로 짙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3) X [해설] (나)에는 1~2줄에서 동일한 시어 및 시행 반복이 보이지만 (가)에는 보이지 않는다.
- 4) ③ [해설] 1연과 2연은 서로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3연은 동일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형태가 동일하다고 해서 후렴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모두 3연, 2행으로 배열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가져온다. ② 반복을 통해 서로간의 연관성을 높이고 있다. ④ 1연과 2연은 서로 유사하지만 3연은 서로 차이를 보인다. ③번 선지와 모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⑤ 1연과 2연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 5) O [해설] 동일한 문장 반복이 아닌 문장 구조의 반복을 물어보고 있다. 따라서 조사 어미를 바탕으로 찾아볼 때 대구법이 난무하는 것이 보임으로 적절하다. 동일한 문장으로 생각했다면 틀린 선지로 판단할 수 있다.